

신문모니터

- 문서번호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_부산_11
- 수 신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복성경)
- 제 목 [부산 선거보도모니터 보고서] 사전투표 하루 전 날, 박형준 후보 인터뷰 기사 보도한 부산일보 선거 마지막 주, 승패 위주 여론조사 결과 부각한 국제신문
- 날 짜 2022년 5월 31일(화요일)

[부산] 사전투표 하루 전 날, 박형준 후보 인터뷰 기사 보도한 부산일보 선거 마지막 주, 승패 위주 여론조사 결과 부각한 국제신문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부산 신문6차 모니터보고서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은 4월 28일 출범일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뉴스, 유튜브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니터보고서는 부산민언련이 작성해 5월 31일(화요일) 발표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22일,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전국 각 유권자 가정으로 배달됐다. ‘성실한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다짐 속에 선거공보물은 장밋빛 공약과 자화자찬성 후보 이력으로 채워졌다. 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에 지역유권자는 더욱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 주였다.

5월 27·28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선거는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고, 지역신문도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 중심의 기획 기사를 내보이기도 했다.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과 지역신문은 얼마나 달랐을까?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6일 자 지역신문의 선거보도 특징과 여론조사 결과로 판세 굳히기, 기획 기사의 부실함 등을 훑아봤다.

기사유형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스트레이트*	40	33	53
기획기사	8	8	16
인터뷰기사	2	5	7
의견기사	6	5	11
사진기사	1	1	2
기타	0	1	1
합계	57	53	110

△ <표1> 선거보도 건수 및 기사유형별 건수(*스트레이트+해설 유형도 포함)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국제신문 57건, 부산일보 53건으로 이번 모니터 기간 보도 건수는 110건이었다. 5차 보고서의 113건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기획 기사가 16건으로 전체 모니터 기간 중 가장 많았다. 국제신문은 ‘공약 팩트체크’, ‘부산시장 맞짱 토론회 중계’, ‘시민패널단에 듣는다’를 선보였고, 부산일보는 ‘후보 공약 답풀이’를 내놓았다.

두 신문의 공통된 선거 기획 특징은 ‘공약’에 주목했다는 건데, 국제신문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의 공약을 팩트체크했다. 부산일보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약을 비교 나열했다. 국제신문의 ‘시민패널단에 듣는다’는 부산시장 후보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패널인 지역대학 신문사 기자들의 평가를 더했다. 청년 당사자 공약평가를 진행해 적절했다.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부산시장 맞짱 토론회 중계’는 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제외하고 진행했다.

의견기사는 모두 11건이었다. 투표를 독려하고, 지방선거의 의미를 제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전달·검증·분석)	20	11	31
후보(약력, 검증)	4	11	15
선거판세·여론조사	17	8	25
행보/동정	13	9	22
선거전략	2	9	11
토론회	2	2	4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0	2	2
선거사무	3	1	4
기타	4	9	13

△ <표2> 보도 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가상 공간 선거운동까지 주목하면서 공식 후보자 토론회는 외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거운동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이번 모니터 기간에는 행보/동정 보도와 여론조사 보도가 눈에 띄었다. 행보/동정 기사의 경우, 건수로 봤을 때는 지난 5차 모니터 기간 31건에 비해 줄었으나, 기사 크기와 지면 배치에서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6차 모니터 기간 내내 부산일보 4면 상단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운동 행보’ 기사가 배치됐다. 특히 5월 24일 자 4면에는 ‘부산시장 후보 동행취재’라며 변성완, 박형준 후보의 선거 유세에 기자가 동행한 내용이 실렸다. 동행취재 대상에 김영진 후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후보자와 기자의 ‘밀착’을 사진을 통해 강조했으나, 실상 기사의 내용은 ‘스마일맨’, ‘점심 끼니용 김밥’과 같이 후보의 인품, 소탈함 등을 부각하는 미담성, 홍보성에 그쳤다.

4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제 23748 호
부산시장 후보 동행 취재
부산일보



다들(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부산 시내 한 유세 일정을 마친 후 차 안에서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 후보는 이동 시간을 잘 활용해 간단히 자료 제공을 받고 귀환했다. 김중진 기자 kjj17@naver.com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낮 12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과적골공공시장 앞에서 행을 내 <부산일보> 이은철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시민들의 생카 촬영 요청에 임응이 응했다. 김중진 기자 kjj17@naver.com

차 안 가득 정책 공부 자료 힘들어도 항상 미소 ‘스마일맨’

“김들이 아저씨야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푸근한 인상 때문에 붙여진 별칭), 캠퍼파! (이재명 총관선대위인원 별명)이 이 위원회를 지칭하는 말)”

6·1 지방선거를 9일 앞둔 23일 부산진구 부정동 주디스 테라 앞에서 이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 이재명 총관선대위 정책위원장의 유세 장소가 마련된 이곳에서 도시랜드 전표의 7번 출구까지 인파가 몰렸다. 두 사람은 500m를 걷는 거리에서 도보 무어에 나섰다.

이곳에는 지지층은 물론, 길을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도 이들과 경로를 짚거나 인사를 나누기 위해 두 사람 곁으로 밀려들었다. 평소엔 걸어서 7분 거리이지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곳을 이동하는 데는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행진이 만만 할 것 같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방선거가 언제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여기를 지나다 알게 됐다”며 “확실히 선거 열기가 많이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후 부산으로 돌아와서 바로 들어간 행진 일정이지만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느껴지는 듯해볼 수 없었다.

변 후보는 하루 평균 6시간 일정을 소화하며 공식 유세 외에도 행진 연습 등 두 번 시민들을 만나러 직접 이동하는 방식

김밥 봉지 든 채 장소 이동 종일 강행군에도 차분한 표정

“후보님! 후보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동하셔야 돼요.”

23일 낮 12시 40분 부산 사하구 과적골공공시장 입구,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지지자들의 생카 촬영에 일일이 응한 뒤, 골목길로 들어서려 하자 일행이 급히 달려가 막았다. 늦어진 일정에 따라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박 후보는 아쉬운 듯 시장 입구 쪽 노상 인산 2-3명과 손을 맞잡은 뒤 발걸음을 돌렸다.

박 후보는 “손이라도 좀 따뜻하게 잡아주고 싶었는데 일정이 제법대로 되지 않으니 아쉬운 따름”이라며 점심 끼니용 김밥 봉지를 든 채 자리를 뒀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 전만은 ‘별로 뛰는 유세’다.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더 많은 시민과 다양한 단체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지가 유세 현장에 드러난다.

이날도 오전 10시 30분(연문사 토론) - 낮 12시(사하구 과적골시장 유세) - 오후 1시 30분(부산진구 메타버스 선캠프 개소) - 오후 2시(CCT 유관 협회 300인 지지선언) - 오후 2시 30분(부산지역 학부모 지지선언) 등 짧은 시간 수십 km를 오가는 일정을 소화했다. 하루 동안 부산지역 학부모, 부산어린이집 연합회 등 3-4개 단체를 직접 만났다.

민주당 변성완 후보

하루 6개 넘는 바쁜 일정 연속 이재명과 서면 유세, 인파 몰려 ‘유권자들 반응에 큰 힘 얻어’ 초반보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은 운동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까닭에 지지층 사이에서는 ‘스마일 맨’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 변 후보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민주당 지지자 A 씨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변 후보님 유세 현장에 응원할 겸 찾는데, 그때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준다”며 “인품이던 인품, 능력이란 능력, 뭐 하나 경쟁 후보에 밀리는 게 없는 변 후보를 잘 홍보해 달라”고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요청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총마를 선언, 이달 12일 총사표를 던진 경쟁자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보다 한 달가량 조기 등판한 까닭에 누차된 피로로 힘들 법도 하지만 이날도 지지층의 시선 반응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이날 일정 야동 과정 중 차 안에 동승한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별로 뛰는 유세’가 선거 전략 기본 사정 요청도 모두 응해 이동 중엔 토론회 할 것도 ‘고단해도 현장 오면 힘 내겠다’

한 유세 현장만 다녀오더라도 마스크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선캠프에 들어간 박 후보는 참석자들의 제지 없는 질문에 그간의 피로와 잃고 웃음짓을 피했다. “하루 중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를 묻자 “집가는 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일터에서 ‘이웃에 대해 배워야 할 때’라고 답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삼명사를 직접 읽고, 정책 제안을 10여 개씩 직접 말하는 등 메타버스 선캠프에 특별한 모습이었다. 오후 1시가 끝나자 “가까운 거리로 이동해서(답변이 느렸다)”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는 오전식에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새 기술을 얼마나 빨리 잘 익혀야 하는지 미처 몰랐다”면서 “부산도 메타버스 선도시가 되기 위해 여러 직업을 하고 있으며, 2030부산브랜드 스포츠 메타버스로 만들어 진행해 보려 한다”고 토론했다.

이날 박 후보는 오후 4시 30분부터 이준석 당 대표, 오태원 부구청장 후보와 구포시장을 도는 합동 유세를 목표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후보는 “일 시간이 거의 없어 체계적으로 할 줄 모르는 현안이 오면 힘이 난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잠 좀 자고, 좋아하는 테니스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oo@busan.com

국제신문은 5월 26일자 5면에 <인스타에 푹 빠진 변성완, 메타버스 세상 연 박형준>을 통해 부산시장 후보의 온라인 홍보를 ‘이색’ 선거운동 행보라 부각했다. 김영진 후보와 관련 해선 ‘아직까지 이색 선거운동이라고 할 만한 활동이 없다’고 언급했다. 선거운동 전략의 중요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광역단체장 후보의 ‘이색 선거운동’이 선거의 필수인양 부각해 상호 간 전략을 비교할 만큼의 중요성을 지니는지 의문이다.

그런가하면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지역신문의 관심은 저조했다. 특히 이번 모니터 기간이었던 24일에는 부산시장선거, 25일에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26일에는 비례대표 부산시의원선거 토론회가 있었다. 위 토론회에 대한 유일한 지역신문 기사는 부산일보 <정책은 뒷전 ‘의혹 공방 90분’>(5/27, 4면)이었다. 교육감 선거 토론회 갈무리 기사로 후보 간 공방에 주목했다.

후보의 선거운동을 유권자에게 알려주고자 기획 ‘밀착 취재’를 시도하는가 하면, 가상 공간에서의 선거운동까지 주목해 부각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후보 행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토론회는 보도하지 않아 아쉬웠다.

지지를 추이에 따른 분석 부재·경마중계식 여론조사 보도 공표금지 기간 앞두고 1면 장식



△ 국제신문 5월 23일, 25일 1면 여론조사 결과 보도

국제신문은 5월 23일 자 월요일 1면을 여론조사 결과 보도로 시작했다. 6·1지방선거 기간 처음이자 마지막 여론조사로, 국제신문 입장에서선 공표금지를 앞둔 ‘마지막’ 여론동향이라는데 무게를 실어 5월 마지막 주를 발표 시기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의 입장에서선 ‘앞섰다’, ‘높았다’, ‘압도했다’와 같은 표현으로 점철된 경마중계 일변도 기사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순 없었다. 오히려 양당의 판세를 드러내 이번 선거를 승패의 관점에서만 주목하고 결과를 단정 짓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다. 특히 그나마 유권자가 여론조사 보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지지율 추이 속 변화나 논리적 분석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후보별 공약 발표에 따른 ‘추이’, ‘변화’ 등의 분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변성완 30.8%, 박형준 59.3%, 김영진 2.4%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부울경 광역단체장

남성은 하윤수, 여성은 김석준 우위...4명 중 1명은 "아직 못 정해"
#부산시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국정안정" 54.6% - "정권견제" 33.0%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기초단체장도 국힘 지지율 크게 앞서...3040선 민주 선전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부산 정당지지도

박형준, 40대 뺀 전 연령대서 앞서...서·동부·중부 '온도차'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

국힘 조병길, 민주 신상해에 크게 앞서...40대선 신 우세
부산 사상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민주 홍순헌, 국힘 김성수에 고전...30·40대선 접전 양상
부산 해운대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민주 노기태-국힘 김형찬 접전...'도덕성 공방' 막판 변수
부산 강서구청장 여론조사 결과

찾잔속 태풍 된 무소속...정종복, 우성빈에 앞서
부산 기장군수 여론조사 결과

△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기사제목 갈무리 ©국제신문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론조사 보도와 같이 ‘판세’를 부각하거나 결과를 단정 짓는 뉘앙스의 기사가 이어졌다. 부산일보 <국힘 국회의원들 “지선 완승 기쁘지만은 않아”>(5/23, 5면)가 대표적이다.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판세만으로 ‘지선 완승’을 단정한 국힘 국회의원 발언을 직접 인용으로 전달해 기사 제목으로 뽑아 아쉬움을 남겼다.

선거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광역단체장	26	20	46
교육감	7	14	21
기초단체장	16	14	30
광역의원	0	0	0
기초의원	0	3	3

△ <표3> 선거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치중 보도경향은 선거 막바지까지 이어졌다. 공천/경선 국면 이후 지역신문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난 셈이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이번 모니터 기간 기초단체장 후보의 이력으로 ‘시의원’을 언급했을 뿐, 시의원(광역의원) 후보에 주목한 선거 기획은 없었고 단순 정보전달마저도 부재했다. 지역신문은 사실을 통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양면성을 보였다. 다음은 부산일보의 5월 26일 자 사설 <‘부산 미래’ 바꿀 시장·시의원, 유권자 손에 달렸다> 발췌 내용이다.

부산시의 행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의원의 역할은 시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 (중략) … 최소한 이들이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들인지, 선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서 투표장으로 나서야 한다. 선거는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저들만의 파티’가 아니다.

	정당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단독 언급	더불어민주당	1	3	4
	국민의힘	0	7	7
	정의당	0	1	1
	무소속	0	1	1
병행 언급	민주당+국힘	27	12	39
	민주당+국힘+정의당	12	6	18
	민주당+국힘+무소속	0	3	3
	민주당+무소속+진보당	0	1	1

△ <표4> 정당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2022지방선거보도 민언련감시단

정당언급 역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비중이 여전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부산지역의 진보 정치 계열 정당에게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부산의 진보 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부산시당은 3월 30일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후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협력, 선거구별 후보 단일화, 공동 공약 선정 작업 등을 진행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돼야 할 기초의회를 거대 양당이 장악하는 현실을 두고 지역신문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이번 선거기간 내내 진보정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홀대로 일관했다.

이번 6차 모니터 기간, 유일하게 진보정당 후보의 선거유세 모습과 목소리가 직접 인용된 기사는 부산일보 <“기동성보다 주민 편의 먼저” 유세차 없는 선거운동 ‘눈길’>(5/26, 10면)이었다. 해당 기사는 영도구의원선거가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권혁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주목해 후보가 왜 이런 운동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직접 들었다. 유일한 직접 인용이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점에선 역시 아쉬움을 남겼다.

사전투표 전 날 맞춰 나온 박형준 후보 인터뷰 부산일보 의도 없었나



△ 부산일보,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기사(보도 날짜 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지난 4월 27일 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영진 후보는 5월 5일, 박형준 후보는 5월 26일에 보도했다. 시장 후보와의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해 주요 공약은 1면에, 질문별 답변은 4면에 배치하고 인터뷰 현장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라는 기획 아래 진행했지만, 박형준 후보의 후보 등록이 늦어지면서 인터뷰 기사 간 간격이 늘어졌다. 각 신문사의 광역단체장 후보 노출, 언급 빈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부산일보의 경우 후보별 인터뷰 기사를 단 한차례 씩 진행해 표면적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켰다고 여길지 모르나, 가장 먼저 시작한 변성완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인터뷰 기사 게재가 한 달이나 차이가 났다. 투표일이 다가올 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3명의 후보 인터뷰 기사를 기간적 연속성 없이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김영진 후보는 신문에 대한 주목이 떨어지는 공휴일에, 박형준 후보는 사전투표 전 날에 보도했다. 특히 박형준 후보 인터뷰는 5월 18일에 진행해 놓고서도, 실제 보도는 사전투표 하루 전 날에 딱 맞춰 보도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또 거대 양당 후보와 김영진 후보 기사 크기에도 차이가 있었다. 김영진 후보의 기사 아래에는 변성완 후보의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 기사가 붙었다. 또 변성완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경우 후보의 주요 공약과 1면 부각 공약이 일치했는데 반해, 김영진 후보의 경우 1호

공약도 아니고 3대 공약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금융위·금감원 부산이전’이 1면에 배치됐다.

변성완, 김영진 후보에게는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묻은 반면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가 자신의 지난 임기를 평가할 수 있게 질문했다.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검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박형준 후보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인터뷰 질문 구성이었다.

	보도 날짜	1면 부각 공약	후보 1호 공약	인터뷰 질문
변성완	4월 27일	가덕신공항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출마계기와 포부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방안과 부지 활용 계획은/ 산은 이전에 대한 생각은/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부산, 해결책은/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 세일즈’ 구체적인 방법은/ 민주당의 부산 지방선거 전망이 흐리다는 말이 나온다, 극복 방안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평가한다면
김영진	5월 5일 (공휴일)	금융위·금감원 부산 이전	월 1만원 무제한 대중교통	3대 공약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내 원전 수명 연장 움직임/ 2030부산세계박람회·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에 대한 입장/ 청년들이 수도권을 찾아 떠나는 문제 해결책은/ 부산 4개 진보정당 영향이 덜하다는 목소리/ 중대선거구제 확대 무산, 선거전략은
박형준	5월 26일 (사전투표 하루 전)	산은 이전	금융·창업 도시	출마계기와 포부는/ 플로팅 가덕신공항 검토에 대해 민주당 비판 /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정책/ 지난 임기를 평가하자면/ 후보의 원전 기조

△ 부산일보의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기사 질문 및 1면 부각 공약(보도 날짜 순) ©부산일보

기획 의도 못 살리는 기획 기사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특성이 정치 지형으로만 고정되는 경향도 보였다. 각 지역구의 현안보다는 대선 투표 지지율, 유명 국회의원 지역구 등이 부각됐다. 이런 경향은 기획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제신문은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 16개 구·군의 후보를 충실히 전달했다. 선거에 임하는 포부, 주요 공약, 대표 경력, 슬로건 등이 나열됐다. 반면 부산일보는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현장에서 만나다’에서 8개 지역구(부산진구, 영도구, 사상구, 해운대구, 사하구, 남구, 강서구, 기장군)만 다뤘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후보에게 질문하기 보다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알리고 싶은’ 공약, 이력이 주요하게 전달됐다.

예를 들어 부산일보 <박재범 “아동 병원비 책임제” vs 오은택 “남구 문화재단 설립”>(5/25, 5면)은 남구청장 후보 관련 기사로, 남구의 주요 현안인 ‘미군 세균 실험실’에 대한 후보의 입장, 대책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붕괴 등급’, 부산진구 ‘시민공원 오염토’ 등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제신문은 ‘공약 팩트 체크’ 기획을 선보이며, 후보 주요공약을 팩트체크 6단계 척도를 활용해 평가를 시도했다. 먼저 교육감의 경우, <김석준 ‘학력신장’ 절반만 사실, 하윤수 ‘도심학교 신설’ 일부 제약>(5/25)에서 하윤수 후보가 주장한 깜깜이교육, 과밀학급해소 위한 학교신설 추진은 각각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평가를 내렸고, 김석준 후보 주장인 학력신장, 미래교육 선도 주장은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평가를 내렸다. 기초단체장 공약 팩트체크의 경우 영도구와 강서구만을 대상으로 ‘하단~녹산선 지하화조기준공’ ‘영도선 트램 2024년 사업 대상 선정’을 검증했다.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공약을 근거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 하지만 팩트체크 대상 공약이 시장 1건, 기초단체장 2건에 머물렀고, 특히 부산시장 공약 팩트체크는 박형준 후보의 ‘어반루프 추진’을 다루면서도 자체 평가보다는 ‘열차 개념 시각차’에 따른 후보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자체 ‘팩트체크 결과’를 내리지 않아 기획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어긋났다.

또 부산일보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약 ‘딥’ 풀이 기획을 선보였다. 먼저 5월 25일에는 ‘부산시장 공약 딥풀이’를 보도했다. 1면 <‘메가시티’ 확장성이나, ‘15분 도시’ 경쟁력이나>에서는 부산시장 후보의 1순위 공약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변성완, 박형준 후보의 주요 공약 나열에 무게를 실었다. 기사 제목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김영진 후보 공약에는 한 단락을 할애했다. 이어 3면에서는 발표한 공약과 선거 공보, 공약집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을 비교했다.

지난 5월 15일 박형준 후보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원전은 80년·100년도 쓴다”는 발언을 해 검증의 대상이 됐음에도, 부산일보는 후보의 원전관에 대해 문제 삼기 보다는 세 후보 간 입장 차이로 드러냈다. ‘딤’풀이가 검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 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일보가 5월 26일 3면에 보도한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 딤풀이’도 앞선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딤풀이와 기사 형식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모든 지역구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약을 ‘딤풀이’하기 보다는 해운대, 강서, 영도, 부산진에 한정해 구청장 후보의 공약을 언급했다. 후보가 내세우는 1호 공약뿐 아니라 유권자가 요구하는 공약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후보 입장을 조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모니터 대상 : 2022년 05월 23일(월요일) ~ 05월 27일(금요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2022년 5월 31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